

PO팀 ‘맥 빠진 경기’ 어이할꼬…

김종건 전문기자의 V리그 레이터

PO대비 전략적 선수 기용에 맥 빠진 경기 속출
‘진출 확정때의 멤버 출전’ 등 솔로몬 지혜 필요
LIG, 인수 지연에 이미 만든 사인공 처리 골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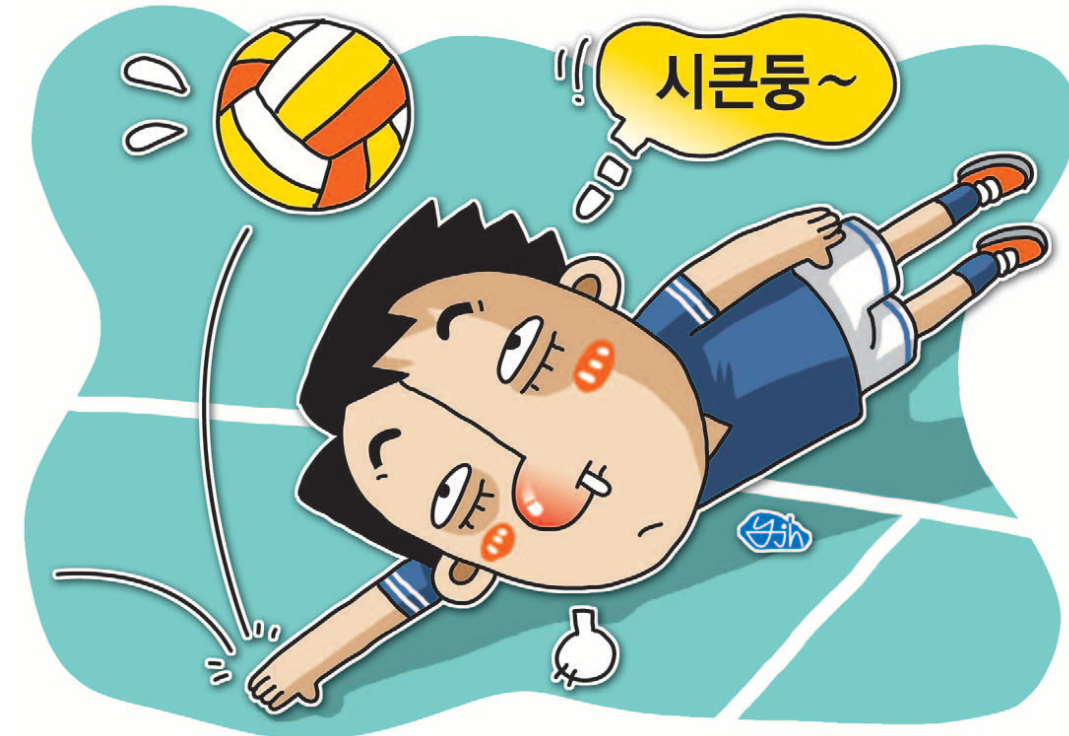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18일 삼성화재-현대캐피탈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갔던 V리그 11번째 시즌 정규리그가 막을 내렸다. 16일 삼성화재-한국전력전을 끝으로 ‘NH농협 2014~2015 V리그’ 남자부 126경기, 여자부 90경기를 소화했다. 이제 남은 것은 20일부터 벌어지는 남녀부 플레이오프(PO)와 챔피언 결정전이다. 유난히 풀세트 접전이 많았고, 라운드 평균시청률도 1%를 넘기는 등 V리그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다. 코트에서 투혼을 불사른 선수들과 매일 승패의 부담을 짊어지고 산 코칭스태프, 내 가족처럼 선수들을 지원한 각 구단 프런트, 올바른 리그 진행을 위해 노력한 한국배구연맹(KOVO)의 협력이 만든 결과다.

●맥 빠진 잔여경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자부에선 3일 삼성화재의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됐다. PO 탈락팀이 조기에 결정된 가운데 2·3위는 7일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의 맞대결에서 결정났다. 같은 날 도로공사사의 여자부 정규리그 우승도 확정됐다. 2·3위는 14일에야 정해졌지만, PO 진출팀은 그 전에 가려지는 바람에 이후 V리그는 사실상 잔여경기였다.

16일까지 벌어진 경기 가운데 몇몇은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고도 남을 열전이었지만, 몇몇은 눈에 띄게 열기가 떨어졌다. 특히 ‘볼배구’ 진출을 확정할 팀들이 문제였다. 전략적인 선수기용을 하다보니 맥 빠진 경기가 속출했다. 야구처럼 한 시즌에 치르는 홈경기가 많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프로배구는 남자 18경기, 여자 15경기가 각 구단 홈경기의 전부다. 야구의 72경기과 비교했을 때, 맥이 빠진 잔여경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볼배구에 나서는 팀들에게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잔여경기에서 팬들을 만족시키고 팀도 납득할 만한 올바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어느 배구인은 1~



3위 순위가 최종 확정되는 경기에 출전했던 스타팅 멤버를 잔여경기의 첫 세트에는 반드시 기용하도록 만들자는 아이디어어도 내놓았다. 물론 현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모든 상황을 규정이라는 틀에 묶어두는 것도,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다.

●LIG손해보험-우리카드의 최종전 뒷얘기

15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LIG와 우리카드의 시즌 최종전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시즌 후 주인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팀간의 대결이었다. 6위와 7위의 대결이었지만, 두 팀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배구팬에게 유니폼 앞에 새겨진 이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듯 선수들은 풀세트까지 승리를 위해 헌신했다.

당초 시즌 도중 팀의 주인이 바뀐다고 했던 LIG는 여러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난처한 일이 생겼다. 사인공 때문이었다. 구단은 이미 새로운 팀의 디자인 시안을 확정했다. 유니폼 등은 결정만 나면 며칠 내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 홈 경기장 장식도 2~3일이면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인공은 달랐다.

2~3개월 전에 물량을 발주한 뒤 중국에서 제조해 바로 공수해오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새 팀의 로고가 들어간 사인공을 만들었는데, 사정이 바뀌면서 쓰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만 해뒀다. 더 답답한 상황은 시즌 도중 감독이 교체되면서 그 공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LIG는 이 공을 다가올 KOVO컵 때 쓸 것인지, 아니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구단은 가끔 이런 난처한 상황을 경험한다. 특히 포스트시즌이 되면 남몰래 준비해둔 옷과 모자, 꽃을 버리는 팀이 나온다. 현대캐피탈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챔피언전에 나갔을 때 우승용으로 미리 모자와 옷을 만들어뒀다. 승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숨겨뒀는데, 결국 쓰지 못했다. 물량이 많고 한두 번이 아니어서 처리를 고민하다 몽골에 보내준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보이지 않도록 했다”고 기억했다. 2번이나 챔피언전에 진출했다가 눈물을 흘렸던 도로공사도 그런 경험을 지니고 있다. “남몰래 버린 축하용 꽃다발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다”고 했다. 과연 이번에는 몰래 준비해둔 그 물건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인지 궁금하다.

marco@donga.com



최민정(가운데)이 16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릴랴츠스코예빙상장에서 열린 2015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3000m 결승에서 선두로 질주하고 있다. 모스크바 | AP뉴시스

신예 최민정, 여제 심석희에 도전장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종합우승

을 시즌 시니어무대 데뷔한 신예 심석희 밀어내고 새 챔피언 등극
김선태 감독 “최민정 발굴 성과”



16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릴랴츠스코예빙상장에서 열린 2015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가운데)이 은메달리스트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왼쪽), 동메달리스트 심석희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다. 모스크바 | 신화뉴스

최민정(17·서현고)이 ‘쇼트트랙 여제’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심석희(18·세화여고)와의 선의의 경쟁도 서막이 올랐다.

을 시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최민정은 16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릴랴츠스코예빙상장에서 열린 2015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1000m와 3000m 파이널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면서 순위포인트 89점을 얻어 여자 1500m 금메달리스트인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68점)와 심석희(47점)를 밀어내고 챔피언에 올랐다. 특히 슈퍼 파이널에선 심석희, 김아랑(20·한체대)과 나란히 1~3위를 휩쓸며 쇼트트랙 강국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최민정이 떠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 쇼트트랙의 에이스는 천부적 재능으로 일찍잡지 ‘여제’라는 타이틀을 얻은 심석희로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심석희가 2014소치동계올림픽 이후의 피로도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 최민정이 시니어 첫 시즌부터 월드컵시리즈 금메달 7개를 쓸어 담으며 에이스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두 10대 소녀의 맹활약 덕분에 한국은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최민정은 “성적이 좋았지만 아직 배

울 게 많다. (심)석희 언니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김)아랑 언니도 부상으로 힘들었을 텐데도 투혼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각오를 다졌다”며 “모든 게 감독님, 코치님, 선배 언니들이 잘 도와주시고 챙겨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방을 쓴 석희 언니와 계속 ‘잘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언니들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기본기를 더 키우고 싶다”고 다짐했다. 쇼트트랙대표팀 김선태 감독은 “을 시즌에는 최민정이라는 보석을 발굴했다는 점이 큰 성과다. 심석희와 최민정은 안방에서 열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동료라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한편 남자부에선 박세연(22·단국대)이 1000m 우승, 3000m 슈퍼 파이널 은메달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오늘부터 IOC 조정위원회…린드버그 위원장 등 참석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강릉 라카이센드파인리조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구닐라 린드버그 위원장을 비롯

한 조정위원 11명, 사무국 및 전문가 20여명 등 IOC 관계자 30여명과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다. IOC 관계자들은 첫 날 오후 2시부터 강릉과 평창에서 건

설 중인 경기장을 둘러보고, 2일째 오전 8시부터 라카이센드파인리조트에서 후원 협약식 및 분회의을 한 뒤 평창조직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마지막 날 오후 3시부터는 린드버그 위원장이 직접 이번 회의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스포츠동아 안 내
광고 문의 및 접수
☎ 02) 2201-5558

미세 후물제
★효과 100%, 직수입
미세 바.씨
★효과 100%, 직수입
최저가 도매상점
부품 총조성된 것은 강함발기
010-2175-2418 010-8674-8545

강한남자 미국정품
후물제 비.씨 효과 100%
*탁월한 효과. 강한발기/각종캡슐
도매가.카드가 010-7600-4116

고개숙인 남성 “센터치”가 인기!

■광고사전 심의필증
심의번호 2008-97-09-0065
(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 취득)
·제조허가 no 제802호
·품목허가 no 제2000-1호

최근 만년필처럼 생긴 “센터치” (발기 유발제 약물주입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직접 주사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여 왔었는데 이를 ‘센터치’라는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센터치”는 바쁜 하나로 간단히 약물(약물은 병, 의원

에서 처방함)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의료기기이고 불펜처럼 작아 휴대가 편하다. 또한 조직이 쉬워서 누구든지 편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제품의 장점이다. (약물 효능은 병, 의원으로 문의)

문의 (서울) 02-2279-4656
(부산) 051-808-7410 BT코리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30419-증-42065호

당당한 자신감!

남성 수술 상담

음경 + 귀두
길 이 + 조루수술

★주사요법 확대
★대체 진피이식술
★포경·무도정관수술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음경만곡증 (성기형) 교정술
★발기부전수술 (임플란트 시술로 성생활 가능)
※수술 당일 샤워, 일반적인 생활 가능

천호역 뉴맨남성의원
02) 477-7523
위치: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한국투자증권 3층

www.198282.net

외로운 밤~
섹시한 여인 명기 19

2015년 공장직영 신제품 출시기념!

선착순 50분께 특별세일! EVENT

50% 증원폭주

국내산 폴리우레탄으로 제작!
절대 무독성이며, 촉감이 부드럽고 탄력이 우수, 휴대하기 간편하며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외로운 남성들을 위로해주는
명기가 최고야!

실물보다 더 섹시한 공기인형 “명기”
“명기”와 놀다보면 날 새는줄 모릅니다.

제품문의: 1588-4102 / 010-6380-5877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0426-증 42371

강한 男子

음경 확대 귀두 확대 조루 치료 발기부전

●미세자지방이식술
●주사요법 확대술
●대체진피이식술
●정관·포경수술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각종보형물 삽입술

열린상담
풍부한 경험
합리적인 비용

발기부전 봉(팽창형·굴곡형) 임플란트 시술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대일남성의원을 검색해보세요!

24시간 상담 **대일남성의원**

(代) 02) 444-1233

※일요일·공휴일·야간 예약수술 가능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농협 2층